

보도 일시	2022. 9. 7.(수) 09:00	배포 일시	2022. 9. 7.(수)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	책임자	과장 김혜주 (044-203-2550)
		담당자	사무관 이종규 (044-203-2551)

문체부 장관, ‘실버이야기연극배우’ 만난다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9월 7일(수) 오후 3시, 문체부 서울 사무소(서계동) 에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참여자와 사업 관계자를 만나 전통 이야기를 한류로 진흥하는 방안과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전통 무릎 교육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노년 여성들이 옛이야기를 유아들에게 전하는 사업으로서, 조손 세대 간 소통, 유아 창의력 함양, 고령인구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최길환·변진경·홍영란 ‘실버이야기연극배우(이야기 할머니)’를 비롯해 운현유치원 백현정 원장, 김은하 이야기 작가, 홍명순 이야기 교육 강사, 한국국학진흥원 박경환 국학진흥본부장, 심상훈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장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3년 전통 이야기 해외 보급 등 신규 사업 총 20억 원 반영

아울러 문체부는 우리 전통 이야기를 새로운 한류로 진흥하기 위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 전통 이야기 해외 보급(5억 5천만 원, 신규), ▲ ‘이야기 공연 배틀’(경연대회, 5억 원, 신규), ▲ 찾아가는 이야기 극단(8억 5천만 원, 신규) 등 새로운 지원사업(총 20억 원)을 반영했다.

* 2023년 정부 예산안 전통 이야기 진흥사업(총 155억 원)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대한민국이 세계적 문화매력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독보적 가치와 매력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전통문화 분야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